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 하반기 제조업 일자리 감소 우려

목 차

■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 하반기 제조업 일자리 감소 우려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최근 국내 고용시장 현황	2
3.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7
4. 시사점	11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경제연구실장)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제연구실/동향분석팀 : 조 규 림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ogyurim@hri.co.kr)

Executive Summary

□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 개요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고용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업황 실적에 대해 매우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인력 사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내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고용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았다.

■ 최근 국내 고용시장 현황

첫째, 국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 취업자는 2014년 1분기 전년동분기 대비 72.9만명 증가했으나 2016년 1분기에는 28.7만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률은 2013년 4분기(3.1%)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 1분기(3.5%)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 1분기 3.8%를 기록하였다.

둘째, 취업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청년층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3년 후반 이후 약 2% 수준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12년 3분기 92.8%에서 2016년 1분기 89.9%로 크게 하락했다. 중년층(30~4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년층(50~64세) 취업자 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하락하고 있다.

셋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4.0%에서 2016년 2.3%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임금근로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증가세는 강화되는 모습이다.

넷째, 고용시장의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청년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며 공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1분기 66.1%에서 2016년 1분기 68.7%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잠재적인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반면 고용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기업의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의미하는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이 제조업 부문에서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2014년 상반기 3.0%에서 2015년 하반기 2.4%로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2%대 초반에서 유지되고 있다.

■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현재 고용시장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과거 불황 시점(T기)은 1998년 3분기, 2005년 2분기, 2009년 1분기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시점의 불황기는 2015년 1분기를 불황 시점으로 하여 불황 전 1년과 불황 후 3년의 고용시장 지표를 비교하였다.

우선 현재 취업자 증가율과 실업률의 경우 지표상 과거 불황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율은 불황 시점인 2015년 1분기를 전후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는 1.1%로 1999년 3분기 3.6%와 2006년 2분기 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최근 추세는 2009년과 유사하게 불황 시점 이후 하락했다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 실업률은 3.8%로 1999년 3분기 5.9%와 2010년 1분기 4.2%보다는 낮지만 2006년 2분기 3.4%보다는 높다.

취업자꺾은 과거 불황기보다 양호하지만 취업률은 2005년과 2009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최근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 취업자꺾은 -0.2%로 1999년 3분기 -2.1%, 2010년 1분기 -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취업률 역시 최근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 96.2%로 2010년 1분기 95.8%, 2006년 2분기 96.6%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취업자꺾과 취업률 모두 낮아지고 있어 고용 시장 여건이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수요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현재 고용시장 수요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2005년과 2009년 불황기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전산업 인력부족률은 2.1%로 1999년(1.0%)과 2006년(2.2%)보다는 높지만 2010년(2.4%)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경우 2015년 인력부족률이 2.0%로 1999년 1.1%보다 높지만 2006년 2.4%, 2009년 3.1%에 비해서는 낮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인력부족률은 2013년 2.6%에서 2014년 2.1%, 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반면 서비스업 인력부족률의 경우 2014년 불황기의 T기 및 T+1기 인력부족률은 각각 2.2%로 과거 불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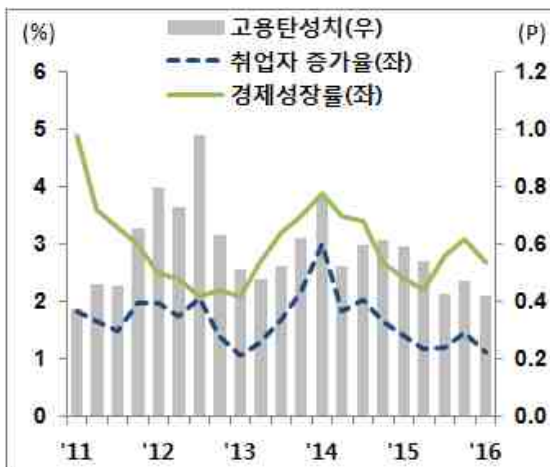
국내 경기 부진 및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 불황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고용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 국내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고용 여건 역시 악화되는 모습

- 최근 국내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 역시 하락
 -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3.9%에서 2016년 1분기 2.7%로 하락하였으며, 취업자 증가율 역시 동기간 3.0%에서 1.1%로 하락
 - 국내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도 2014년 1분기 0.77p에서 2016년 1분기 0.42p로 하락
- 국내 기업들의 업황 실적과 인력 사정 간 경기 체감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향후 국내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 확대
 - 국내 기업들의 업황 지수는 2015년 4월 78p에서 2016년 2월 63p로 크게 하락했다가 2016년 4월 70p로 재차 상승
 - 반면 인력 사정 지수는 90p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신규 고용이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고용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과거 불황기¹⁾와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

<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
 2)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경제성장률.

<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1) 실적 기준.
 2)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좋다고 판단.

1) 과거 불황기는 1998년, 2005년, 2009년이며, 불황기 선정 기준은 7p 참조.

2. 최근 국내 고용시장 현황

- (전체 취업자 현황) 국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악화되는 추세
 -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 초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실업률도 상승
 - 국내 취업자 증가폭은 2014년 1분기 전년동분기 대비 72.9만에서 2016년 1분기 28.7만명으로 크게 감소
 -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2013년 4분기 3.1%에서 2014년 1분기 3.5%로 상승했으며 2016년 1분기에는 3.8% 수준으로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했으나 취업률은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1분기 61.0%에서 2016년 1분기 62.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반면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13년 4분기 96.9%를 기점으로 2016년 1분기 96.2%로 하락

<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

<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1) 계절조정 기준.
2) 취업률 = (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 (연령별 취업자 현황)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률 자체는 하락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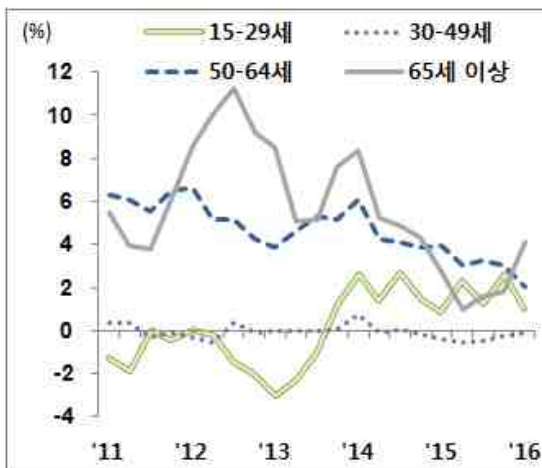
-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30~64세) 취업자 증가가 부진한 모습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3년 후반 이후 플러스가 지속, 2014년 1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7.1만명 증가
- 반면 중년층(30~4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이후 -0.1~-0.6%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 장년층(50~64세) 취업자 증가율 역시 2014년 1분기 6.1%에서 2016년 1분기 2.1%로 꾸준히 하락

- 전연령층에서 취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취업률이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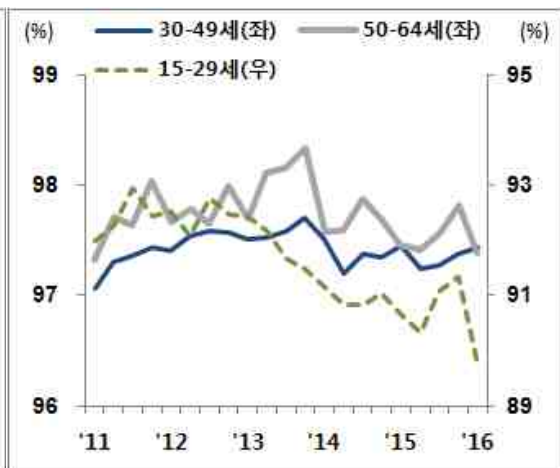
- 2013년 이후 전연령층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층 취업률은 2012년 3분기 92.8%에서 2016년 1분기 89.9%로 크게 하락
- 이는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1분기 42.6%에서 2016년 1분기 46.3%로 크게 상승한 것이 주 원인

< 연령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 연령별 취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1) 계절조정 기준.
2) 취업률 = 취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율이 크게 상승

-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 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
 -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2016년 1분기 2.3%로 2014년 1분기 4.0%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플러스가 지속
 - 반면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자영업자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각각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
-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세가 강화되는 모습
 -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증가율이 2013년 8월 4.0%에서 2015년 8월 2.7%로 하락하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증가율이 2013년 8월 2.1%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5년 8월 3.7%로 크게 상승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 임금근로자 형태별 취업자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매년 3월과 8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고용시장 공급)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고용시장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 등 잠재적 공급 증가 요인 확대

- 청년층(15~29세)과 장년층(50~64세)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꾸준히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1분기 66.1%에서 2016년 1분기 68.7%로 지속적으로 상승
-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2013년 1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각각 31.3만명, 96.1만명 증가
- 반면 중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동기간 3.3만명 증가에 그침
-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²⁾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향후 노동시장에 잠재적인 공급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구직단념자는 2014년 1분기 27.9만명에서 2016년 1분기 47.4만명으로 19.5만명 증가, 취업준비자는 동기간 54.5만명에서 62만명으로 7.5만명 증가
-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를 합한 노동시장의 잠재적 공급 가능 인력은 동기간 27만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구직단념자 및 취업준비자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취업준비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 학과 기타 취업준비의 합계.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

○ (고용시장 수요) 고용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경기 악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

- 국내 산업별 생산증가율을 보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

-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이후 2015년 중반까지 1%대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2%대로 소폭 상승
- 이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이 2015년 하반기 이후 3%대에 근접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
- 반면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주요 산업별 인력부족률 역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노동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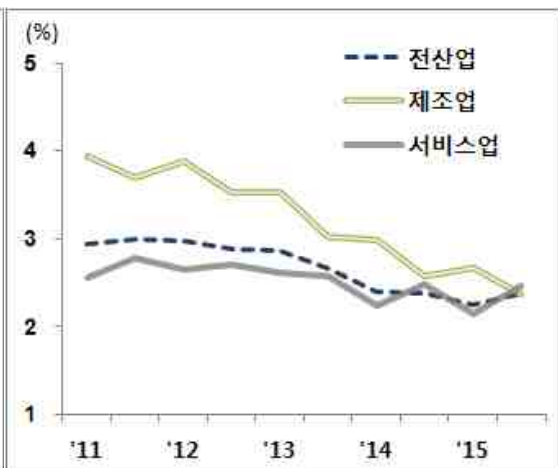
-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³⁾
- 제조업 경기 부진의 여파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인력부족률이 2014년 상반기 3.0%에서 2015년 하반기 2.4%로 하락
- 반면 서비스업 인력부족률은 2014년 이후 2.2~2.5% 수준에서 등락

< 산업별 생산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 산업별 인력부족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주 1)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 100.
2) 반기별 인력부족률 기준.

3) 부족인원이란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및 생산시설 가동, 고객의 주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필요한 인원을 의미.

3.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 연구 방법

- (비교 시점) 현재 고용시장 현황과 비교하기 위한 과거 불황기는 통계청의 경기순환기 기준순환일을 고려하여 경기 저점 시기로 설정
 -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경기 저점은 1998년 3분기, 2001년 3분기, 2005년 2분기, 2009년 1분기 등4)
 - 본 보고서에서는 분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기 저점 시기를 불황기(T기)로 하여 발생 전 1년(T-4기)에서 발행 후 3년(T+12기)까지 주요 지표를 비교
 - 현재 불황 시점은 전산업생산지수 생산갭⁵⁾이 마이너스를 보였던 2014년 1분기에서 2015년 4분기의 중간 시점인 2015년 1분기를 불황 시점으로 설정
 - 단, 2001년의 경우 1998년과 시차가 크지 않고 순환기가 35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

< 과거 불황기 및 현재 고용시장 비교 시점 >

	T-4분기 (불황전 1년)	T분기 (불황시점)	T+12분기 (불황후 3년)
1998년	1997년 3분기	1998년 3분기	2001년 3분기
2005년	2004년 2분기	2005년 2분기	2008년 2분기
2009년	2008년 1분기	2009년 1분기	2012년 1분기
2014년	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	-

자료 : “최근 경기순환기(제9/10순환)의 기준순환일 설정(통계청 보도참고자료, 2014.06.27.)”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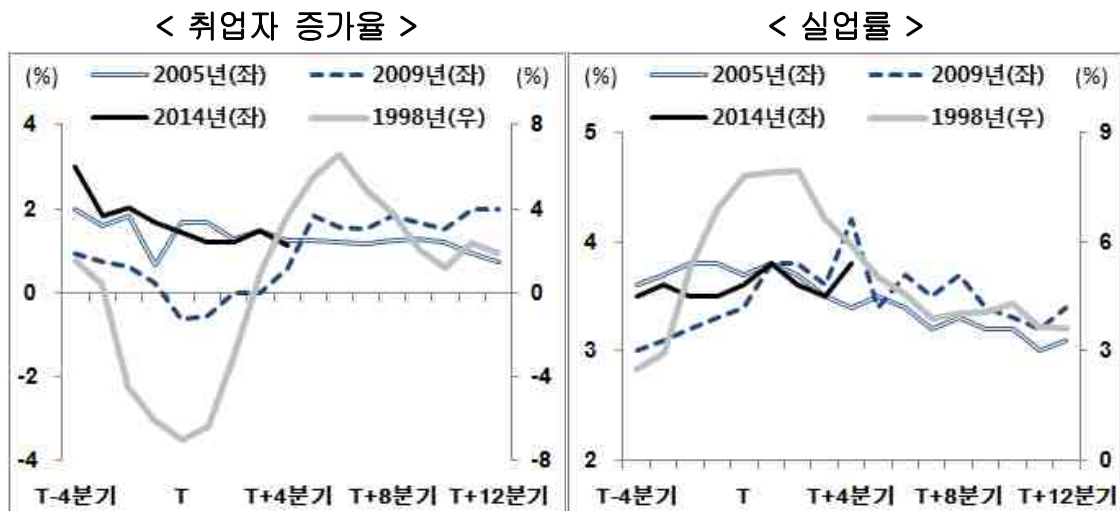
- 주 : 1) 2009년 경기순환기(제10순환)의 경우 경기저점이 미정.
 2) 2014년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기 저점은 아니지만 과거 불황기와 현재를 비교하기 위해 2015년 1분기를 불황 시점으로 가정.

4)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순환일은 월을 기준으로 발표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분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월이 포함된 분기를 경기저점 시기로 설정함.
 5) 전산업생산지수의 생산갭이란 HP 필터링을 통해 산출된 전산업생산지수의 장기추세선 대비 실제치가 벗어난 정도를 의미.

- (비교 지표) 과거 불황기와 현재 고용시장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취업자꺾⁶⁾, 취업률, 인력부족률 등의 지표를 이용⁷⁾

○ 주요 지표 비교 결과

- 현재 취업자 증가율 및 실업률은 지표상 과거 불황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모습
 - 1998년과 2009년에는 불황 시점(T기)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은 플러스가 지속되었으나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하락
 - 최근 불황 시점(2015년 1분기, T기) 전후 취업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T+4기인 2016년 1분기 1.1%로 1999년 3분기 3.6%와 2006년 2분기 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하락하는 모습
 - 최근 불황기 실업률의 경우 2009년과 유사하게 불황 시점 이후 하락했다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그 수준은 2016년 1분기 현재(T+4분기) 3.8%로 2005년의 T+4분기 3.4%보다 높음
 - 2005년의 경우 불황 자체가 깊지 않았으며 중국의 고도 성장 등에 따른 세계 경기 호조로 인해 실업률이 불황 시점 이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평가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주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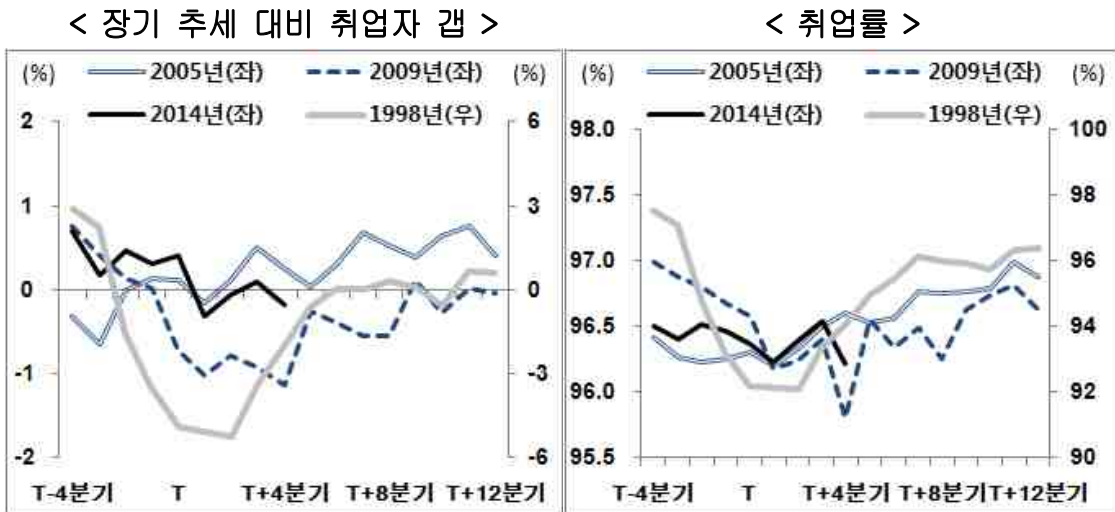
주 : 1998년은 연구원 자체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외는 통계청의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

6) 취업자꺾은 HP 필터링을 이용해 산출한 취업자의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GDP꺾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

7)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는 1999년 6월부터 데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1998년의 경우 구직기간 1주 기준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1998년 불황기와 다른 불황기의 지표의 수준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불황 시점 전후 지표의 추세적 움직임을 비교.

- 취업자갭은 과거 불황기보다 양호하지만 취업률은 2005년과 2009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

- 장기 추세를 제거한 취업자갭의 경우 2015년 불황 시점(2015년 1분기) 0.4%로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6년 1분기 -0.2%로 하락
- 최근 불황기 취업자갭은 1998년 불황기의 최저 -5.0%, 2009년 -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
- 취업률의 경우 현재 불황기의 T+4기인 2016년 1분기 96.2%로 1999년 3분기 94.1%와 2010년 1분기 95.8%에 비해 높지만 2006년 2분기 96.6%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상황
- 현재 취업률 역시 취업자갭과 마찬가지로 불황시점 전후로 낮아지는 추세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 주 1) HP필터링을 통해 산출한 취업자의 장기 추세와 실제 취업자간의 갭을 의미.
- 주 2) 1998년은 연구원 자체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외는 통계청의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

- 현재 고용시장 수요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2005년과 2009년 불황기보다 부진한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전산업 인력부족률은 2.1%(2015년, T+1년)로 1998년(1.0%)과 2005년(2.2%)보다는 높지만 2009년(2.4%)보다는 낮은 상황

- 그러나 최근 제조업 부문 인력부족률은 T-1년(2013년) 2.6%에서 T기(2014년) 2.1%, T+1년(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1998년과 2009년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불황 시점(T기) 이후 T+1기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의 경우 T+2년부터 회복하는 모습
- 반면 서비스업 인력부족률의 경우 2014년 불황기의 T년 및 T+1년 인력부족률은 각각 2.2%로 과거 불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산업별 인력부족률 추이 >

		(%)				
		T-1년	T	T+1년	T+2년	T+3년
1998년	전산업	2.4	0.6	1.0	1.2	1.1
	제조업	3.0	0.7	1.1	1.5	1.4
	서비스업	1.7	0.6	0.8	0.9	0.9
2005년	전산업	2.2	2.5	2.2	2.8	1.8
	제조업	2.4	2.7	2.4	2.8	1.9
	서비스업	2.0	2.3	2.0	2.7	1.9
2009년	전산업	2.8	1.8	2.4	2.8	2.6
	제조업	2.8	1.9	3.1	3.5	3.1
	서비스업	2.7	1.9	2.1	2.5	2.4
2014년	전산업	2.3	2.1	2.1	-	-
	제조업	2.6	2.1	2.0	-	-
	서비스업	2.3	2.2	2.2	-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 주 1) 분기 자료 부재로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8년 이후는 하반기 기준 인력부족률 사용.
- 2)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 3)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 100.
- 4) 2009년은 경기 저점이 2009년 2월로 2008년 하반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8년을 T기로 설정함.
- 5) 최근 불황 시점 역시 2015년 1분기로 2014년 하반기에 더 가깝기 때문에 2014년은 T기로 설정함.

3. 시사점

첫째, 경기 불황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에 속해 있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노력이 필요

둘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고용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

- 국내 주력 산업들의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및 투자 실패 등으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
- 특히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시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실직자들이 기존의 경력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
 - 또한 기존 업무의 숙련도를 제고하거나 IT 교육 등을 접목하는 등의 전문화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셋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최소화하고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력이 필요
 - 인력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 확대 및 삭감 등을 통해 실업자 발

생을 최소화

- 또한 직무분할로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의 파트타임 일자리로 나누거나(잡세어링), 직무 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어(워크세어링)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해 사측과 노조가 인식을 공유하고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확보
 - 국내 주력 산업의 저부가, 저기술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부가, 고기술화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 또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HRI**

조규림 선임 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